

Amant String Quartet 아망트 스트링 콰르텟

RECITAL PROGRAM, Jun 16, 2015,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뛰어난 연주력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Amant String Quartet'는 정통 클래식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사이를 넘나들며 관중들에게 아름답고 호소력있는 음악으로 다가가기 위해 2014년 창단되었다. 각 멤버들의 많은 연주경험과 풍부한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청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곡인 모차르트 현악4중주 19번 k.465는 해결되지 않은 불협화음들이 도처에 사용되고 있어 '불협화음 4중주'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 화성에서는 불안정한 불협화음은 반드시 안정된 협화음으로 해결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시로서는 금칙으로 되어 있었던 미해결 불협화음을 모차르트는 왜 굳이 감행하려 하였을까를 생각해보며 감상하면 더 재미가 있는 곡이다.

두번째 곡은 라벨 현악4중주곡 라벨이 남긴 단 3 곡의 실내악 작품중에 하나이며 라벨의 음악적 생애에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매우 흥미로운 곡이다.

드뷔시나 포레의 현악4중주곡과 함께 근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악4중주곡의 하나로서 초연 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작곡가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한 명작이다. 이 곡은 매우 정교한 기법과 신선한 감각이 넘쳐 있고, 대체로 우아하고 환상적인 서정이 지배적이며 스승인 포레에게 바쳐졌다.

마지막 곡은 20세기의 탁월한 남미 작곡가 히나스테라가 창작한 곡이다. 그의 작품들은 대략 1960년까지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띤 곡들과 그 이후 더욱 현대적

이며 진보적인 작곡어법을 사용 하여 쓴 작품들로 구분된다. 그러나 히나스테라 자신은 좀더 세분화된 작곡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3단계로 나누어 객관적인 민족주의, 주관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신표현주의라고 명칭하였다. 히나스테라의 주관적 민족주의는 그의 현악4중주 제1번으로부터 시작되어 6년간 지속된 작곡 경향을 말한다. 그는 "이 현악4중주 제1번에는 팜파스 음악의 리듬, 멜로디, 동기들이 포함 되어 있으나 그것들이 명백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 표현적 긴장감은 작곡가의 자신에 의해서는 감지되지만 청중에 의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이것이 바로 히나스테라가 말하는 '주관적'인 민족주의인 것이다.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String Quartet No.19 in C K465 (Dissonance)
Adagio-Allegro
Andante Cantabile
Minuetto:Allegro-Trio
Allegro Molto

-Intermission-

Maurice Ravel (1875-1937)

String Quartet in F major
Allegro moderato-Très doux
Assez vif-Très rythmé
Très lent
Vif et agité

Alberto Ginastera (1916-1983)

String Quartet No.1 Op.20
Allegro violento ed agitato
Vivacissimo
Calmo e poetico
Allegramente rustico